

## 01 원조의 국익화(Aid Nationalism)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정책에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원조의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삭감, 불안한 국제정세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난민 문제, 국내 안보 등 복합적인 상황이 원조에 미친 영향이라 볼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2017년 11월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이타주의에서 국익으로(From Altruism to National Interest)’라는 제목의 안건이 상정되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정책과 국익과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고 OECD DAC 사무국은 개발협력은 “국익의 표현”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영국은 2015년 11월 ‘국익 안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원조의 목표로 명시하였고, 개발협력정책에서 원조가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국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은 외교정책의 중추적 요소로 간주하며 4대 목표 중 하나로서 “네덜란드의 국제 소득 역량 향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4년

“호주 원조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호주의 국익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호주의 국익이 글로벌 가치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JICA 4차 중기계획 2017-2021」에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 문제를 다룰 것과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의 발전과 국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2019-2020」을 통해 “뉴질랜드 원조프로그램이 자국의 국익이 증진·보호되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OECD DAC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 정부도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도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익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원조’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김보경 2021).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ion, ODI)에서는 29개 DAC 공여국들이 추구하는 국익의 유형이 얼마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수원국뿐만 아니라 공여국 스스로의 국익 추구에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원칙 기반 원조지수(Principled Aid Index, PA 지수)를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김수진 2021).

## 02 혼합금융(Blended Finance)

2015년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와 함께 채택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공적자금 외에 추가적인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대응방안 중 하나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한국수출입은행 2021). ODA를 포함한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자 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혼합금융은 개도국 투자에 접근이 어려웠던 민간투자자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개

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으로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경제포럼(WEF)과 OECD DAC은 혼합금융을 “개도국 시장으로의 민간투자자원 동원을 위한 개발금융과 자선자금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OECD 혼합금융 원칙은 개발목적성, 민간재원 동원,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고려, 효과적 파트너십, 모니터링이

그림 1 주요 기관의 혼합금융에 대한 정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1, p.2) 재정의.

라는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b).

혼합금융은 투자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금융수단과 비금융수단을 구조화하여, 개발효과가 높은 영역으로 민간투자재원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둔 자원 조달 방식으로, 정부-민간 간 위험 분담을 통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되는 공공 부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사업 영역(제조업, 광산업 등)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혼합금융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는 크게 투자에 참여하

는 목적에 따라 개발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자원 공급기관과 비개발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부문 참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b).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크게 직접자금지원(direct funding)과 간접지원수단(supporting mechanism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증여(grants), 대출(debt), 자본투자(equity)는 직접자금지원으로, 보증(guarantees)은 주로 간접지원 수단으로 활용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

오호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hyoh@krihs.re.kr)

### 참고문헌

- 김보경. 2021.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3권, 4호: 1-28.
- 김수진. 2021.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연계: 상생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현황 고찰. 개발과 이슈, no.6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 2015. SDGs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혼합금융(Blended Finance). EDCF 이슈페이퍼 vol.4, no.7.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2017a.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 EDCF 이슈페이퍼 vol.6, no.4.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2017b.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지원수단 및 구조화 기법. EDCF 이슈페이퍼 vol.6, no.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2021.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1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